

정목 스님 SBS '아이러브' 강사로

30일 토요일 밤 12시 15분

정목 스님이 SBS '아이러브'에 출연 '행복한 삶'에 대해 강의한다. 스님은 이날 방송을 통해 행복이 항상 곁에 있음을 강조한다.



재능기부 강사로 참여한 정목 스님

스님은 내 마음 한 자리, 말과 행동 하나 바꾸는 순간 훨씬 더 큰 행복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일깨워준다. 행복한 소용돌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레짐작하기,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 생각하기, 남 탓하기, 비교하기, 완벽하지 않으면 못 견디기 등 5가지라고 스님은 강조한다. 또한 학인 시절 경험과 젊은 날의 깨달음 등에 관련한 이야기도 청중들의 가슴을 울린다.

울린다.

아이러브는 강연자와 MC, 출연 가수 전원이 노개런티로 출연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방송은 11월 30일 토요일 밤 12시 15분. 정혜숙 기자

창작 찬불동요제 대상에 '동자꽃'

제 4회 창작 찬불동요제 대상에 '동자꽃' 박성원 어린이(석천초등 4)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BBS 불교방송이 주최한 제4회 창작 찬불 동요제는 11월 16일 서울 잠실 불광사 보광당에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동자꽃'으로 대상을 수상한 박성원 어린이.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거친 총 10팀이 참여했으며, 200여 명의 관중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대상 수상곡인 박성원양의 '동자꽃' (작사 최은정·작곡 김드림)은 산사의 동자꽃을 소재로 순수한 자연과 어린 불자의 맑은 마음을 아름다운 노랫말과 차분한 가락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혜숙 기자

두 남녀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

불교극단나마스떼 '오늘 부는 바람' 11월 27일부터 연우 소극장서



'오늘 부는 바람' 포스터

진흙속에 피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두 남녀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된다. 불교극단 나마스떼(대표 남우성)의 '오늘 부는 바람'이 11월 27일~12월 1일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열린다.

극단 나마스떼는 창단 이후 줄곧 창작극만을 무대화하고 있다. '오늘 부는 바람'은 <순타사파타경>에 나오는 '진흙속에 피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구절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이 작품은 젊은 시절의 혼돈을 두 남녀의 만남과 이별을 통해 그리고 있다. 이야기는 남편이 쓴 가사를 듣고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작곡가를 찾아가는 여인의 등장에서 시작한다. 여자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면서까지 좋은 노래는 진실해

야 된다는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여자가 진실한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펼쳐진다. 여자는 젊은 시절 욕망을 좇아 부잣집 아들과 결혼했다. 남편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여자와의 결혼을 선택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의도된 두 사람의 결혼은 정상적인 가족을 만들지 못하고 파국을 맞는다...

주인공 남녀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면의 상처를 안고 몸부림친다. 이런 과정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 즉 마음을 밝히는 일과 다르지 않다. 나마스떼 남우성 대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내 마음의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극 속에 녹여내고자 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02)3676-367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달빛·바람소리 그릇에 담으니 연꽃으로 피었네

첫 개인전 여는 도예가 박명숙 씨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작품에 임해요. 처음 작업을 할 때는 머릿속으로 무언인가를 그리기도 하지만 무심으로 그릇을 빚다보면 그 생각마저 사라지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릇이 완성돼 있어요."

도예가 박명숙 씨(58)가 서울 인사동 '더케이 갤러리'에서 12월 4일~10일 첫 개인전 '연꽃에 내린 달빛'을 연다. 전남화순 쌍봉사 옆 작업실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10년간 작업을 해온 그녀는 이번 전시에서 연꽃문양 등으로 빚어낸 2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 중 눈에 유독 들어오는 작품이 '개구리가 있는 거친 항아리'다. 겉면에 달빛이 내려앉은 듯 황토빛깔을 내고 있는 연잎 수반 위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다. 그대로 자연을 담아낸 것이다. 이처럼 그녀 작품 대부분은 연꽃이 소재다. 바람에 살랑살랑 휘날리는 연잎이 선율처럼 다가오고, 겹겹의 연잎들이 살포시 피어나는가 하면, 화병의 구연부는 수줍은 듯 압전하게 올라온 연꽃이 보는 이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작품의 소재를 주로 자연에서 찾습니다. 강렬한 색채의 유혹도 있지만 그윽한 달빛을 표현하고 싶어 가능한 한 그릇 표면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아요. 어떤 때는 바람의 흔적을 느끼기 위해 다듬지 않고 거칠게 놓아둘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



도예가 박명숙 씨는 전남화순 쌍봉사 옆 작업실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10년간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연꽃문양 등으로 빚어낸 2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매일 108배와 선수행하며 쌍봉사 옆 작업실 풍경 담아 연잎 문양 도자 작품 제작 12월 4일~10일 케이갤러리

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매화, 연꽃, 연꽃잎, 개구리, 구름 등을 작품 속에 담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작업실에서 쌍봉사가 한눈에 보인다. 아침마다 18년째 108배 수행을 하는 것은 물론 작업을 할 때는 수불 스님의 법문CD를 듣는다고 하니 눈으로는 자연을 담고 귀로는 법문을 담아 무심으로 연꽃 그릇을 피워내는 것이다. 또한 이번 작업은 낙산사 화재로 나온 홍승으로 작업을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개구리가 있는 거친 항아리

"장작연료는 2005년 화재로 베어내야 했던 낙산사의 홍승을 사용했어요. 당시 낙산사 주지스님이셨던 정법 스님께서 보내 주신 장작을 쪼개 8년 동안 그늘에 말려 보관했어요. 너무 귀한 연료라 아껴 쓰면서 작업을 했죠. 제 작품에 낙산사의 기운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소설가 정찬주 씨의 아내이기도 한 그녀는 국영기업체 직원이었다. 천주교 신자였지만 남편을 만나 불교로 개종하고 오랜 시간 수행을 이어왔다. 직장을 명예퇴직하고 10여년전 시작한 도자기는 운명 같은 것이었다. 조선백자의 전통을 잇는 지현 김기철 선생의 문하에서 도자작업을 익혔고 전남도립대 도예산업디자인과에 입학해 이론을 겸비하는 등 열정을 쏟았다. 현재 그녀의 법명인 무량광에서 이름을 따온 '무량광도예'를 운영하며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02)764-1389 정혜숙 기자

전통사진전 대상에 '보리암의 아침'

650명이 1,781 작품 응모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사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 공모전 대상에 이상민 씨의 '보리암의 아침'이 선정됐다. '보리암의 아침'은 "우리나라 자연과 전통 사찰의 아름다움을 잘 포착했다"며 "디지털 사진의 장점을 활용해 풍성한 색을 드러냈다"는 심사위원의 평가 속에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 이용섭의 '낙안읍성 성곽돌기'는 "저녁노을의 하늘과 실루엣의 사람들, 성벽 그리고 햇살의 느낌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훌륭하게 완성했다"는 평가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처음 진행된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 공모전'은 전통문화사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 콘텐츠를 개발·확보하고 국내·외 홍보에 활용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접수는 2013년 9월 25일~10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650명이 1,781 작품을 응모했다.

공모전 심사는 국내 전통문화관련 사진 전문가 5인을 선정 11월 18일 최종심사를 통해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 특선(10명), 입선(30명)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진필훈 교수(신구대 사진영상미디어과)는 심사 총평을 통해



제1회 대한민국전통 문화사진 공모전 대상으로 선정된 이상민 씨의 '보리암의 아침'

"국내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잘 표현한 사진을 중심으로, 공모전 주제에 충실한 작품들을 선별했다"고 평했다.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 공모전 수

상작품 시상식은 12월 2일 오후 3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진행하며 수상작 전시회는 같은 장소에서 12월 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정혜숙 기자

(주)에스큐
마하연 투 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바고/시리암 (직항) **5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7일**

-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직항) 5일 139만원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 (직항) 7일 210만원
- 인도8대 성지순례 15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성지순례 7일 139만원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성지순례 4일
- 관음도량(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4일
- 문수도량(오대산 / 석가장) 성지순례 5일
- 보현도량(아미산 / 낙산) 성지순례 5일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콘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헤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종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